

화성에 가자는 것처럼 가슴 설레는 비전 찾기가 쉽나요?

그래. 말이 쉽지 멋진 꿈을 갖기도, 오래 간직하기도 참 어려워. 일단 담대하게 비전을 잡고 나면 자기 자신부터 세뇌해야 하는데, 엄청난 비전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막막하지?

하지만 지레 낙담하지 마. 화성에 가는 원대한 꿈이 아니어도, 구성원들의 가슴을 뛰게 할 비전은 우리도 잡을 수 있어. 짐 콜린스Jim Collins의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Built to Last)》이라는 책에 나오는 ‘BHAG(비헤그)’라는 개념이 아주 유용하단다.

BHAG는 뭐지? Big Hairy Audacious Goal, 크고 대담하며 도전적인 목표를 가리켜. 그런데 솔직히 가슴에 와닿지는 않지? 그 의미를 곱씹으며 좀 더 풀어볼까?

Big! 터무니없이 커보이는, 남이 들으면 ‘우와!’ 하는 꿈.

Hairy는? 머리가 쭈뼛 서는, 아슬아슬한, 스릴 있는 꿈.

Audacious는 뻔뻔하리만치 대담무쌍한, 말이 되나 싶게 담대한 꿈.

즉, BHAG란 한마디로 엄청 야심만만한 목표야.

현대그룹이 어떻게 조선업에 진출했느냐, 이걸 널리 알려진 이야기지만 BHAG를 이해하는 데 이보다 적절한 사례는 없는 것 같으니 한 번 더 상기해보자.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 건설을 위해 영국에 대출을 신청했어. 영국에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으니 “25만 톤급 다섯 척을 동시에 지으려면 6,3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대. 그중 4,300만 달러를 외자로 조달해야 했는데, 1971년 우리나라 경제개발 예산의 15%에 달할 만큼 막대한 규모였어.